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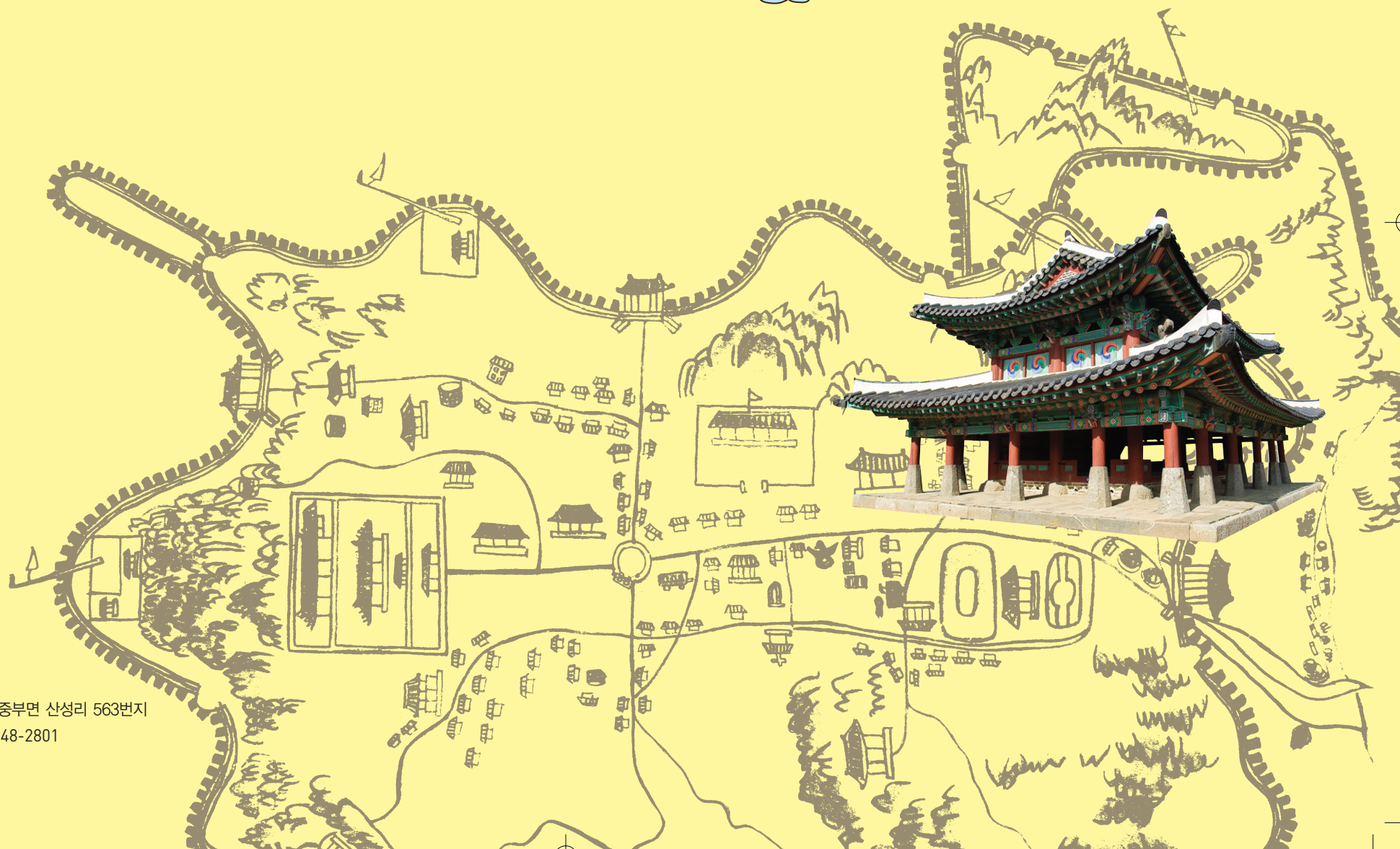
학교 학년 이름:

방문날짜: 년 월 일



고관서역사속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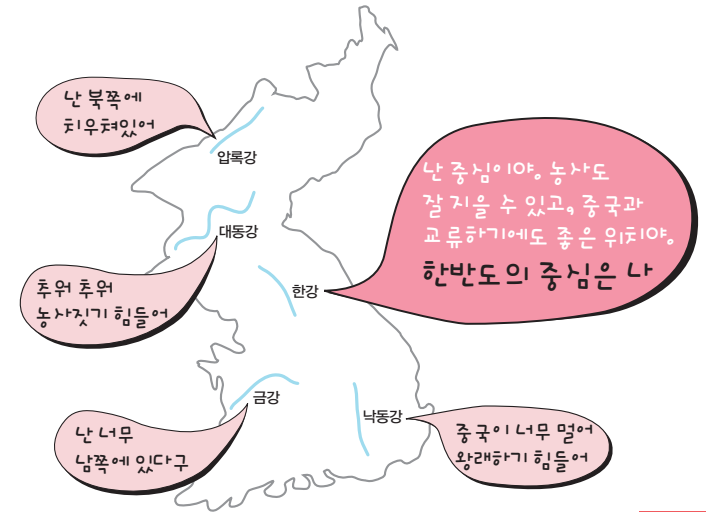
남한산성은 언제 생겼을까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으니 둘레가 4,360보이다. 라고 쓰였고 지금의 남한산성의 둘레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조 때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만들 때 옛 자리를 따라 남한산성을 쌓게 하였다. 라는 「남한지」의 기록으로 주장성이 남한산성임을 알 수 있었지요. 옛기록의 근거로 주장성은 남한산성의 또 다른 이름이며 신라 문무왕 12년AD672에 만들어졌답니다.



남한산성은 왜 만들어졌나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면 주로 육로나 배를 이용하여 침입을 했습니다. 외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적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높은 벽을 쌓아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은것입니다.



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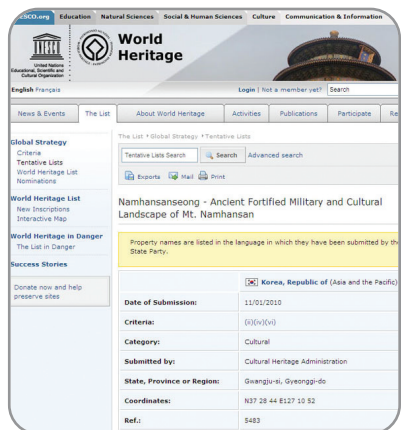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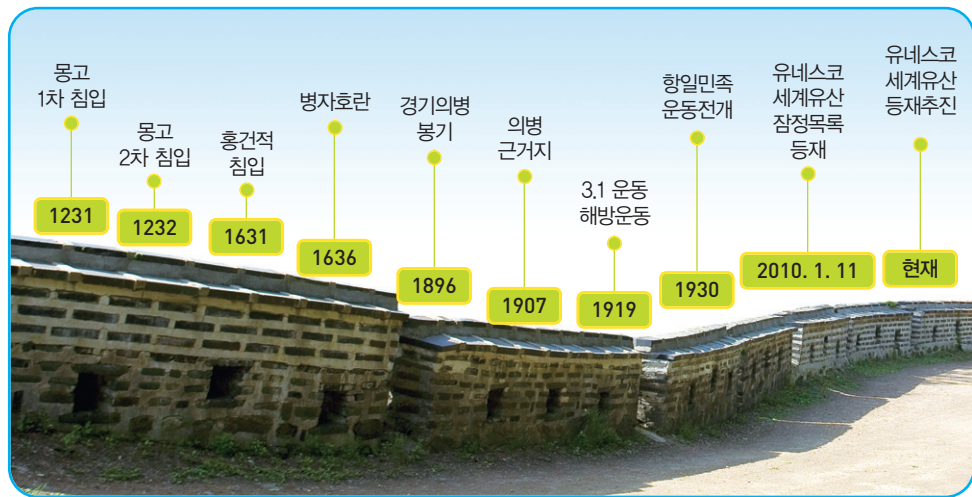
한강 주변의 나라들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이 통일 되었어요? 당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면 대동강 남쪽 지역의 땅을 신라에게 주기로 하였답니다. 당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 했어요, 심지어 신라까지도 그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렸지요. 신라는 당나라의 욕심을 눈치채고 전쟁에 대비하려고 남한산성을 쌓았답니다.

남한산성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1월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 ★ 세계에서 주목하는 문화재를 보러 우리나라에 여행하러 오겠죠?
- ★ 우리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 알릴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면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전문적 학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인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교과서 속 남한산성에 관한 역사

인조반정(1623년)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키며 조선의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정치를 하였답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정치를 싫어하는 집단이 반란을 일으켜 광해군을 멀리 보내고 인조가 왕에 오른 사건을 말합니다.

이괄의 난(1624년) 인조반정 때 1등 공신이었던 이괄이 2등 공신으로 벼슬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삼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의 아들이 후금으로 도망가 광해군이 억울하게 왕위에서 물러났다고 알려져 훗날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묘호란(1627년)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멀리하는 정치를 했답니다. 후금이 광해군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조선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결국 후금과 형제의 나라로 관계를 맺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자호란(1636년) 후금은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은 조선과의 관계를 형제의 나라에서 임금과 신하의 나라로 바꾸자고 조선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랑캐라 부르며 무시했던 조선은 이에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청은 쳐들어왔고 인조임금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병자 호란과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병자호란때 47일간에 항쟁을 벌였던 곳으로 인조임금의 항복으로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병자호란에 가려져 남한산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지요. 하지만 남한산성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외적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남한산성의 중요성을 알고 오랜 세월 동안 보수를 하며 지금까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한산성은 어떤 곳인가요?

남한산성은 국가사적 제57호로 여러 차례 수리와 보수로 새롭게 지어지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여러 시대에 걸쳐 한강유역 및 수도를 지키는 역할을 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5군영 중 하나인 수어청의 근거지이며, 광주 읍치를 관리했던 시설로 290년간 산성을 지켜온 산악 군사, 행정지역입니다.

나는 내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으로 이름은 외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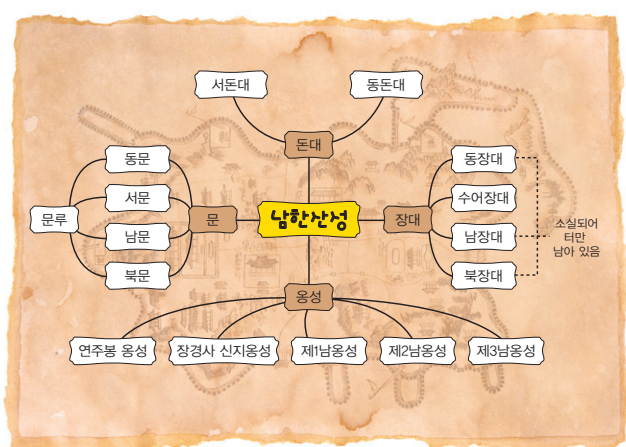
0607

나는 폐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으로 내성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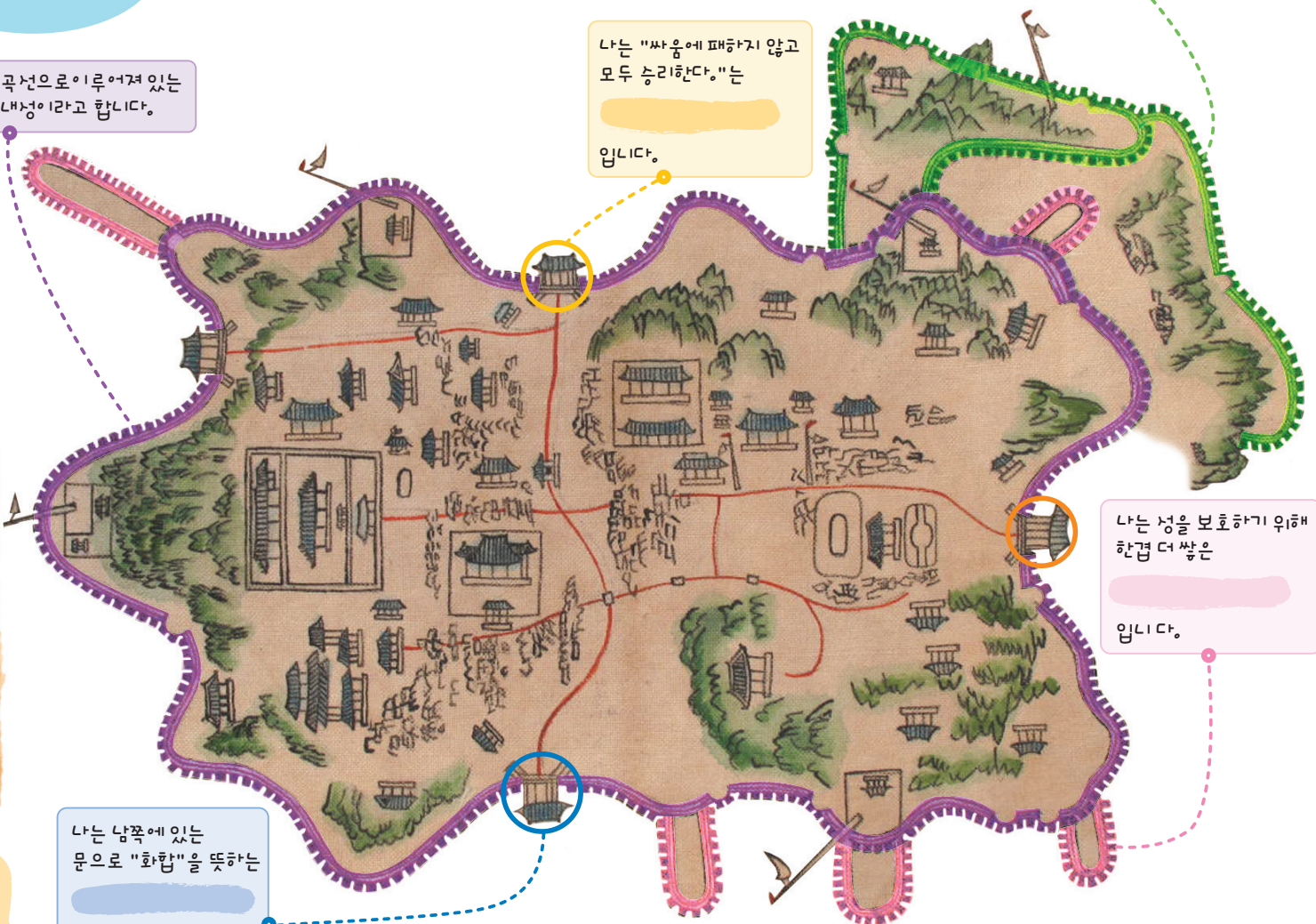
나는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입니다.

나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겹 더 쌓은 입니다.

나는 남쪽에 있는 문으로 "화합"을 뜻하는 입니다.



- 문루 성문 위에 지은 초소
- 장대 장수가 올라가서 명령하고 지휘하던 곳
- 돈대 중요한 요충지에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관찰하는 시설물
- 암문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들어 필요시 비상구로 사용
- 옹성 성벽을 한 겹 더 둘러싸는 이중의 성벽



17세기 고지도를 변형한 남한산성 지도.

5군영은 조선시대의 방어체제로, 도성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두어 성안의 경비와 임금의 호위를 담당했고, 총융청과 수어청은 수도외곽의 방어를 담당하였던 곳.

남한산성의 문화재

0809



합계	국가지정			경기도지정				
	소계	보물	사적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26	2	-	2	10	6	-	2	2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기능
국가 사적	제57호 제480호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방어시설 별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수어장대 송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지휘시설 사당 관아시설 군사시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제15호	지수당 장경사	정자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제119호	망월사지 개원사지	사찰

국가 사적
사적은 문화재 중 선사유적, 성곽, 도요지, 지석묘, 사진, 패총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

경기도 지정문화재
경기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경기도지사가 향토 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문화재자료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기념물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와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남한산성의 심장 행궁

남한산성 행궁(국가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은 '광주행궁' 또는 '남한행궁'이라 불리우고 조선시대 25여개의 행궁 중 종묘와 사직을 갖춘 유일한 행궁입니다. 조선시대에 남한산성 행궁은 국가 전란 시 서울을 대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한 일종의 예비 궁궐입니다.



발굴



복원 공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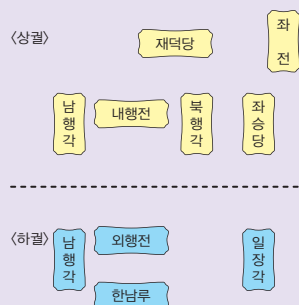
완성도

건물은 상궐 72.5칸, 하궐 154칸으로 모두 226.5칸의 규모였으나,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붕괴되거나 헐리고 터만 남아있던 것을 복원하였습니다.

행궁은 목적에 따라 왕이 임시로 머무셨던 곳입니다.

어떤 목적의 행궁들이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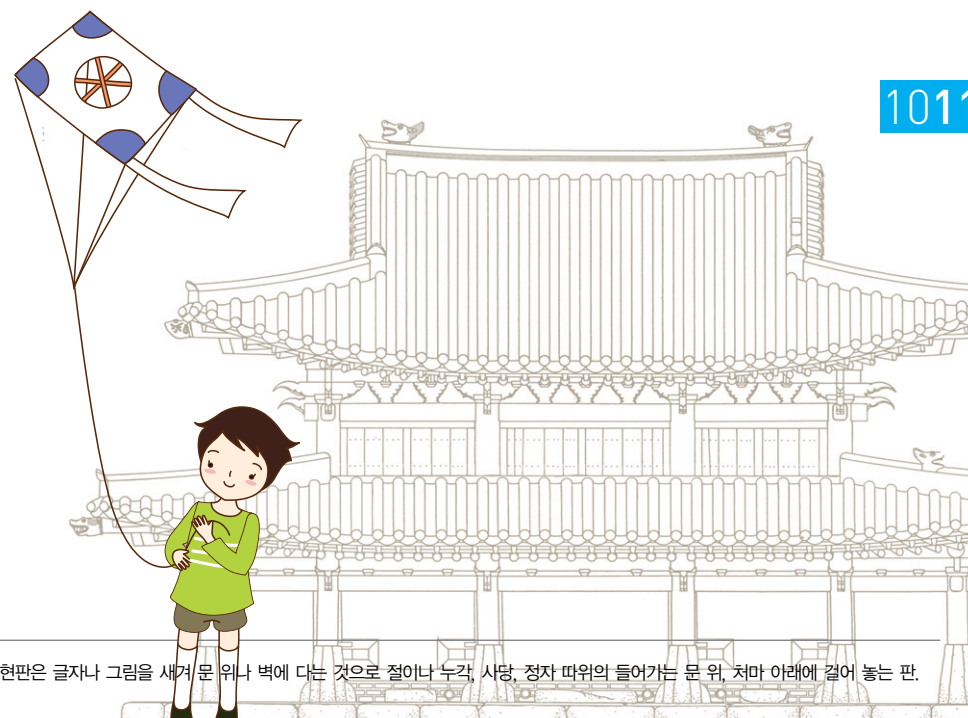
- ⊙ 전쟁: 나라가 위급할 때 왕이 피신하는 곳으로 사용.
- ⊙ 휴양: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병치료를 할 때 사용.
- ⊙ 능행: 각 지방 왕릉 행차 시 머무는 곳.



- ⊙ 재덕당: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추축
- ⊙ 내행전: 왕의 생활공간
- ⊙ 남행각: 호위무사들이 사용했던 건물
- ⊙ 북행각: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건물
- ⊙ 좌전: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공간
- ⊙ 좌승당: 광주부에서 제일 높은 책임자가 업무를 보던 공간
- ⊙ 외행전: 임금님이 신하들과 업무를 보던 곳
- ⊙ 일장각: 광주의 행정 업무를 보는 곳
- ⊙ 한남루: 남한산성행궁의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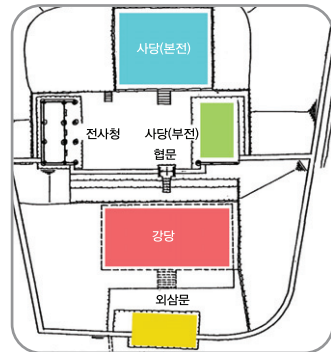
수어장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장수의 지휘시설로 마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적군을 사방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다락처럼 높이 짓고 문과 벽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대는 성내에서 주변을 살펴보기에 편한 장소에 있으며 남한산성에는 동, 서, 남, 북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대는 수어 장대로 나머지는 소실되고 터만 남아있습니다. 단층 누각이었는데 영조 때 이층으로 고쳐 짓고 수어 장대라는 현판과 누각2층 안쪽에는 무망루라는 현판을 달았습니다. 무망루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 온 후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 하던 중 죽음을 맞이한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지은 이름입니다. 1989년 수어장대 동쪽에 전각을 건립하고 이 안에 현판을 새로 설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송렬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송렬전은 인조17년(1639)에 만들어졌고 정조19년(1785)에 송렬이라 사액^❶하였으며, 백제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산성을 쌓을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의 위패^❷도 함께 있으며 매년 음력 9월5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송렬전의 구성은 두개의 사당으로 온조왕을 모신 본전, 이서 장군을 모신 부전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과 옛 성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을 배우는 곳으로 사용된 강당이 있습니다.



청량당(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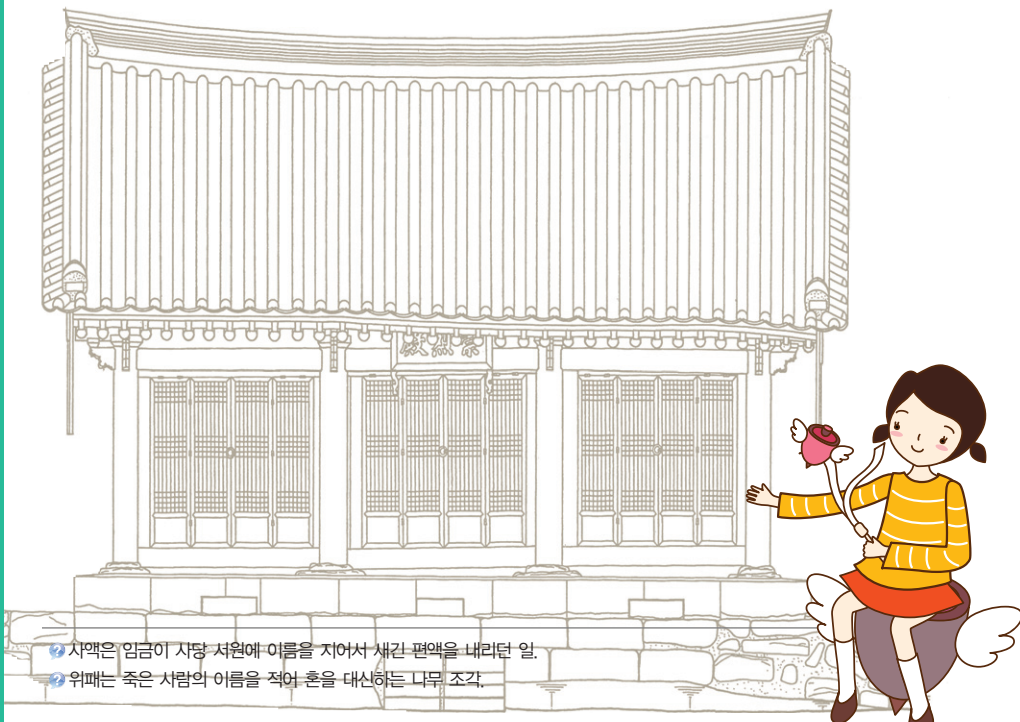
남한산성 동남쪽 책임자로 총직한 인물인 이회장군이 모함으로 죽음을 처하게 되며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청량당은 이회장군의 억울함이 밝혀진 이후 수여장대 서쪽에 두어 남한산성을 쌓은 벽암 각성대사와 이회장군, 그의 부인의 영혼을 위안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곳 사당 안에는 벽암 각성대사, 이회장군, 이회의 부인들, 대신 할머니 등 초상화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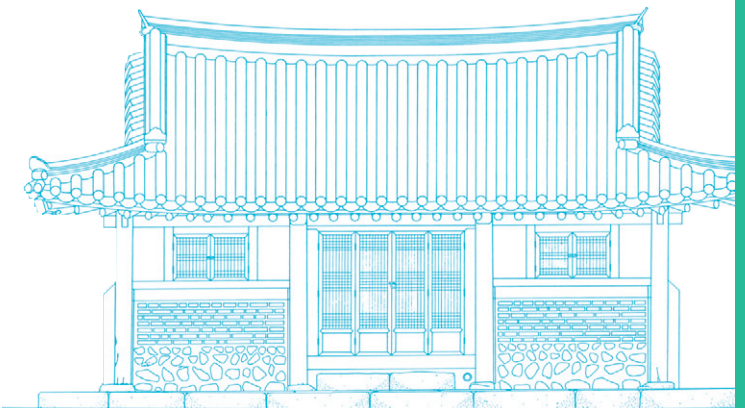
* 이회장군이 좋지 않은 운수로 죽음을 당해서 횡수대감이라고 부르는것에서 유래하여 '대감당'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깊은 무속신앙으로 까지 자리 잡아 '횡수액'이라 하여 1년 동안 집안에 드는 흉한 운수나 재앙을 막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정성스레 비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하여 칠월칠석에는 '칠석맞이'를 합니다.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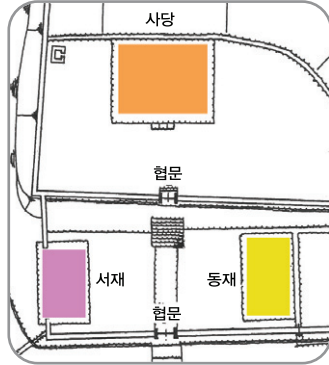


❶ 사액은 임금이 사당 서원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❷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혼을 대신하는 나무 조각.



현절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현절사는 병자호란 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청나라에 끌려가 목숨을 바쳐 선비정신을 보인 삼학사 오달제, 윤집, 홍익한의 영혼을 모신 사당으로 1688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삼학사와 같이 청나라에 항복하기를 반대했던 김상헌, 정온의 위패도 1699년부터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이후 이곳 현절사는 청나라를 배척하려는 정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침괘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침괘정은 무기제작소라 알려져 왔으나 온돌과 마루방, 툇마루 등의 건물 구조로 보아 집무실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 있던 무기창고를 명나라 사신이 '총융 무고'라 이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는 침괘정으로 불리고 있으나 현판은 '침과정'입니다. 침과란 '창을 베게 삼는다.'라는 뜻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데 전념 한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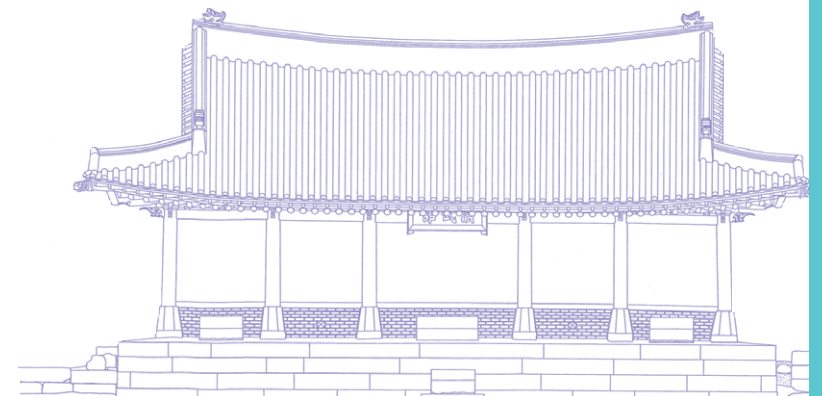
연무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은 인조 2년(1624)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조선시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배우고 수련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연무당 이라 불리었고 숙종 때는 연병관, 정조 때는 수어영 이라 이름을 바꿨으나 그 뒤에 보통 연병관, 연무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Namhan
sanseong

1415



지수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지수당은 현종13년에 지어졌으며 당시 고관들이 한가롭게 놀던 낙시터였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천원지방'의 원리가 연못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고, 만들 당시 정자를 중심으로 앞뒤에 3개의 연못이 있었지만 현재는 2개의 연못만 남아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호국불교의 상징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을 쌓는 공사를 위해 전국 8도의 스님들이 동원되었고 개원사 등 총 10여의 사찰이 운영되었습니다. 성을 쌓은 이후에도 산성을 지키기 위해 270여 년간 의승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장경사(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

남한산성의 성을 쌓을 때 만들어 졌고 남한산성 내의 10개의 사찰 모두 일제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 건물의 대부분은 재건축한 것이 랍니다. 유일하게 남한산성에 있는 사찰 중에 당시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고 있는 곳이며 승병들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망월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남한산성의 사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옛 망월사는 모두 불타버리고 90년부터 복원되고 있습니다. 망월사지에는 직경 167cm의 대형 맷돌이 유물로 보존되어 있어 사찰의 규모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개원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19호)

인조2년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세워졌으며 전국에 산성을 쌓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동원된 승도들과 전국의 승도들을 총괄하던 지휘소였습니다. 개원이란 '근본을 새로 시작한다',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지도만들기

제작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